

- 발신: 채식급식 국민운동본부  
(121-809)서울 마포구 대흥동 22-79번지 302호 채식급식 국민운동본부.  
전화번호: 010-삼삼이사-6477 이메일: LWB22028@daum.net
- 수신: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
- 참조: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급식기획팀

## <'채식 선택권' 보장 및 '주(週)1회 채식 급식' 제안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교육을 위하여 항상 노력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전국에서 시행중인 '무상급식' 만큼 중요한 '채식 선택권' 보장 및 '주 1회 채식급식'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래와 같이 필요성을 제시하며 학교 급식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기를 제안드립니다. 회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제안 배경(문제점과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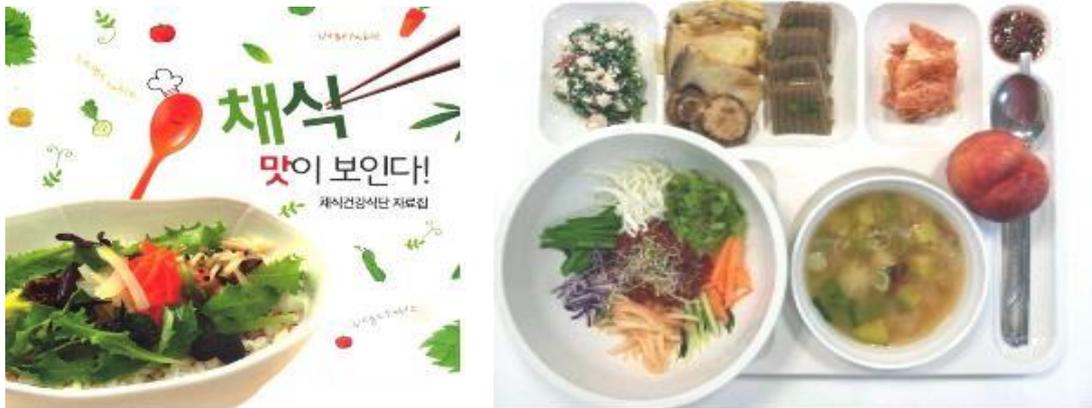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건강,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육식위주의 식생활은 우리의 건강과 삶, 환경을 무서운 속도로 위협하고 있다.

'먹는 것이 곧 당신 자신이다'(You are what you eat)라는 말이 있다. 먹거리는 건강뿐 아니라, 자연과 생명에 대한 교감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생명 교육의 장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체 심장혈관 질환 사망자의 약 80%, 전체 암 사망자의 약 70%, 당뇨병 사망자의 약 65%가 육식과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체 질병 사망자의 약 75%가 육식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도한 육식위주 식습관이 가져오는 성인병의 급속한 증가와 환경파괴, 동물학대 등을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올바른 건강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채식 급식이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경우, 과도한 육식 문화와 인스턴트 식품 등으로 인하여 아토피, 비염, 천식, 고혈압, 당뇨, 소아 암, 성 조숙, 비만 등으로 건강이 급속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체질 또한 심각한 상태로 나빠지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 통계'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비만학생 비율은 17.3%로 10년전인 2008년 11.2%에서 거의 매년 증가하였다.

특히 고도비만의 경우, 증가폭이 매우 크며 고도비만 소아, 청소년들은 각종 성인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사증후군' 위험이 정상체중군보다 최대 66배나 높았다.

또한, 살이 찌수록 포만 호르몬이라 불리는 '렙틴'(leptin)이 체내에 축적되는데, 렙틴 축적이 많을수록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포만감을 못 느끼는 '렙틴저항성'이 나타나 고도비만으로 이어지게 한다.

'렙틴'은 뇌하수체, 부신, 시상하부 등에 작용하여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성조숙증이 발병하면 성장판이 조기에 닫혀 키가 자라는 기간이 짧아지게 되고, 이는 성장 부진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초, 중, 고교에서 급식은 육류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햄과 소세지 등 가공육은 1군(Group1) 발암물질로, 붉은 고기와 적색육은 2군(Group2A)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가공육이 속한 1군 발암물질에는 술, 담

배, 석면, 플루토늄, 벤조피렌, 청산가리,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심장질환, 암, 당뇨병, 비만 예방을 위해 하루 최소 4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 섭취를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채소 반찬은 남기고 육류반찬 위주로 식사를 하고 있다.

학생들은 달고 짜고 자극적인 맛을 선택하지만, 그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며 학생들은 자신의 몸속에 들어가는 먹거리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학교당국은 이를 교육할 의무가 있다.

육식 위주의 식생활은 학생들의 체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폭력적 성향을 증가시키고 학습능력 저하 등의 여러가지 문제를 가져 오고 있다.

반면 채식 위주의 식생활은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데 긍정적 작용을 하며, 안정감과 집중력을 키워주고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패트릭 홀포드' 박사의 '음식과 두뇌에 관한 연구').

'비만 관리부'를 신설한 영국은 과일, 채소 섭취 캠페인을 진행해 왔고, 이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국가들로 확산되었다. 10명 중 3명이 비만 청소년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는 2003년부터 일주일에 하루는 채식급식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을 관리하는 '고기없는 월요일'(Meatless Monday)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빈곤층 학생들의 비만을 증가시키는 심각한 미네랄 부족증과 더불어 학교폭력, 자살충동 등 정서적인 문제까지 확산된다는 이유에서, 각 학교는 급식을 바꾸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뉴욕시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주1회는 채식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채식 선택권' 보장과 더불어 '주1회 채식급식'은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는 빠르고 쉬운 대안이며, 현대인의 생태적 감수성을 높여주는 살아있는 교육으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의 '육식의 종말'(Beyond Beef) 책에서 "햄버거안의 쇠고기 패티 1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1.5평의 숲이 사라지고, 전세계적으로 가축사육으로 인해 매년 한반도 남한 면적 크기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사막화가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마존이 파괴되는 91%의 원인이 고기를 얻기 위해서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한다(자료출처: 다큐멘터리 '카우스피라시'<COWSPIRACY>).

또한 가축 사육에서 비롯되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환경파괴 수준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똑같은 양의 단백질 생산을 위해서도, 고기는 곡물보다 수배에서 수십배 이상 물과 에너지가 더 필요로 한다.

'존 로빈슨'은 그의 저서 '음식혁명'(FOOD REVOLUTION)에서 "1kg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16kg의 곡물이 필요하며, 전세계 곡물 생산량의 약 40%가 가축 사료로 쓰이면서 지구의 식량 분배를 왜곡시키며 굶주림과 기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 환경연구기관인 '월드워치'(World Watch)는 "공장식 축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는 버스, 자가용, 배,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합친 값(13%)보다 많은 51%가 배출된다."고 밝혔다.

가축에서 주로 발생하는 메탄가스,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수십에서 수백배 이상 태양의 열기를 강력하게 잡아둔다. 실제로, 축산업은 아산화질소의 65%를 배출하며, 이 기체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이 296배 더 높다.

또한 가축의 방귀와 트림을 통해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70배 이상 큰 메탄이 다량으로 발생한다. 아마존의 산불도 소고기 소비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 1주일에 하루! 고기를 안 먹으면?(연간통계)



차 500만대  
STOP 효과  
(영국)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인당 2268Kg의 Co2)



물부족 문제  
해결  
(인당 132,400L)



축산업의  
기후변화 기여도  
51% 이상 증가

1주일에 하루 고기를 안 먹으면, 차 500만대를 멈추는 효과가 있으며, 1인당 2,268kg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1인당 13만 리터의 물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기없는 월요일 자료).

실제로 114g 햄버거를 1개를 만드는 데, 물 2,500리터가 필요하다. 햄버거 1개만

먹어도 두 달 치 샤워를 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생활 속에서 물을 절약해도 육식을 한다면 그 모든 노력이 무색해지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라젠드라 파차우리' 의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 채식하는 것이다.”라고 제안하였다. 네덜란드 ‘환경평가국’도 완전 채식을 하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안정화시킬 때 드는 비용의 80%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날 소, 돼지, 닭 등은 ‘공장식 축산’(Factory Farming)이라는 환경속에 수많은 동물학대에 시달리며 성장촉진호르몬제, 항생제 등 각종 화학약품에 의지한 채 하루 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육식문화가 만들어낸 전염병들은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50년간 새로 발생한 인간 감염병의 75%가 동물에서 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뿐 아니라 사스(SARS), 메르스(MERS), 에볼라바이러스(EbolaVirus), 신종플루(돼지독감), 광우병(BSE), 조류인플루엔자(AI),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등 수많은 질병들이 육식에서 발생한 것이다.

'한국채식단체연대'(이하 채식연대)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7개 시, 도 교육감 후보들에게 보낸 채식 관련 정책 및 인식 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채식연대'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전국 교육감 19명의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 14개 지역 15명의 후보로부터 대부분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채식연대'가 보낸 질의서에는 ■학부모 학생 교직원 대상 채식먹거리 교육과 홍보 마련 ■학교 급식에서의 채식 선택권 보장 ■주1회 이상 채식 급식 장려 및 지원 ■현미중심의 건강한 채식 식단 및 급식비 지원 ■우유 급식 대체 할 채소, 과일 제공 등이 담겼다.

정책 제안에 대한 각 후보의 추가 의견을 살펴보면 서울 조희연, 인천 도성훈, 울산 노옥희, 전북 김승환, 경남 박종훈 교육감 후보는 학교 급식에서의 채식 선택권 보장에 대해 “현실적 어려움은 있으나 다양성 존중의 측면에서 적극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민병희 강원 교육감 후보자는 적극 찬성했다.

주1회 이상 채식급식 장려 및 정책 지원에는 인천 도성훈, 충남 김지철, 전남 장석웅, 경북 이찬교 후보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남겼다. 부산, 광주, 전북은 이미 주1회 채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왔다.

##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2020년 6월 18일 서울시 교육청은 제1회 '생태전환교육포럼'을 열고, 서울지역 학교에 채식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급식 '채식 선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생태전환 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0~2024)을 발표하였다.

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에게 개인 건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채식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나친 육식은 소아비만, 소아당뇨, 면역계 질환,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또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언급하며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채식 급식 선택제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가 어떤 식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구 온실가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두부스테이크 덮밥(채식, 수퍼레시피 제공)의 재료 중, 소고기 등심 한가지만 두부로 바꾸었는데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놀라웠다.

두부 120g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47kg인데 반해 같은 양의 소고기 등심 120g에서는 5.37kg의 이산화탄소가 나와 무려 11배가 넘는 온실가스가 배출된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약 1,830명의 서울시청 직원에게 매주 금요일 중식을 채식 식단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서울시 산하 588개소 공공급식소에서 주1회 또는 월 2회 채식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청 직원들의 1년 동안 공공급식 52끼니를 채식식단으로 하면 30년생 소나무 7만 그루를 심은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청은 5년 동안 주 1회 채식을 시행했으니, 무려 35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셈이 된 것이다. 서울시 산하 588개 공공급식소에서 주 1회 채식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무려 755만 그루의 30년생 소나무를 심은 효과에 해당되고, 이는 종로구 일반가정 45%의 연간 전기 사용량이기도 하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0세 이상 서울 시민 5명중 1명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30세 이상 서울 시민 70%는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인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혈증, 저HDL혈증 중 1개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료비는 2006년 1852억원에서 2015년 8529억원으로 4.6배 증가했으며 고혈압의 경우 2014년 단일상병으로 가장 많은 진료비를 썼다.

서울 시민의 30세이상 고혈압 진단은 2008년 17.4%에서 지난해 19.1%로, 당뇨병 진단은 2008년 6.5%에서 지난해 7.7%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현미밥과 같은 통곡류를 주식으로 하는 채식식단이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활습관과 식단의 변화를 통해 대사증후군 등의 만성질환을 치유하는 '라이프스타일 의학'(Lifesyle Medicine)이 각광받고 있다.

'하버드' 의대에서는 최근 요리를 통해 질병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스탠포드' 의대에서는 의과 대학생들이 주방에서 요리실습을 하는 커리큘럼도 등장했다. 국내에서도 의료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흐름에 대한 모색이 이어지고 있다.

SBS TV “잘 먹고 잘 사는 법”(채식편)에서는 채식 급식을 하는 삼육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같은 연령층의 학생들에 비해 몸 안의 중금속 잔류량이 극히 적다는 사례가 발표되었다.

채식은 머리를 좋게 만들고 평화로운 품성을 기르게 하며, 아토피, 비염 등의 알레르기성 질환으로부터 우리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채식은 뇌세포를 활성화하여 ADHD증후군과 우울증,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여 관절염을 예방해준다. 그리고 많은 연구조사에서는 채식이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암질환으로부터 예방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980년 미국 영양학회지에는 "채식하는 어린이의 높은 정신연령과 IQ"라는 연구보고서가 실렸는데, 그 보고서의 저명한 영양학자 '드와이어'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보통 어린이는 IQ가 99였음에 비해 채식을 하는 어린이의 IQ는 116으로, 무려 17이나 높은 연구 조사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미국 '농무부'(USDA)의 보고서에서는 학교급식에서 채식식단의 제공이 2003년

22%에서 2009년 67%로 증가되었다고 발표했고, 유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순식물성 '완전채식'(비건, Vegan) 급식은 2009년 미국 전체학교의 20.5%가 제공되고 있다. 2008년 한 해동안 미 농무부가 받은 채식급식확대에 대한 청원은 1만 건이 넘어 학교급식 뿐 아니라, 병원의 급식도 채식으로 점차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무상급식'과 아울러 건강한 먹을거리가 학교밥상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미 2011년부터 광주와 전라북도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주1회 채식 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주1회 채식급식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급식업무 담당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며 건강상, 환경상 반드시 지속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채식의 날' 시범학교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주 1회 채식의 날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채식을 기반으로 한 급식을 제공하게 된다. 채식 식단은 육류 육가공품 인스턴트식품을 자제하고 전통식단인 나물, 조림, 찜, 국 등 채소를 많이 사용해 구성된다.

전북교육청은 또 채식 식단의 다양화를 위해 식생활 전문가나 채식요리 전문가를 초빙해 급식 담당자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채식 활성화가 학생 체질 개선과 건강증진 효과가 있다고 하고, 채식의 날 시범학교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교육청은 채식의 날 시범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채식의 날 운영에 대해 만족한다'는 질문에 학생 91.8%(2013년 88.3%), 학부모 99.7%(98.9%), 교직원 98.9%(98.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채식의 날 운영에 따라 '채식 섭취에 노력한다'는 학생 92.1%(91.9%), 교직원 99.0%(98.7%)가 '그렇다'로 조사됐다.

'채식 음식의 맛은 좋다'는 학생 94.4%(91.9%), 교직원 99.8%(99.1%), '채식은 건강에 도움된다'는 학생 92.4%(89.1%), 학부모 99.2%(96.5%), 교직원 99.8%(98.7%)로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학생 3270명, 학부모 623명, 교직원 6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교육청은 시범학교에서 운영해 온 채식 식단 중에서 선별한 100가지 채식 요리 레시피와 시범학교 운영 관련 자료 등으로 구성된 '채식건강식단 자료집'을 발간해 전체 학교에 배포했으며, 채식시범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우리 전통 음식문화

연구 등 채식에 관한 연수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 대구 영진고 현미채식 급식 효과

※ 급식에 참여한 학생 34명의 평균치임



(주1회 채식급식을 운영중인 대구 영진고 학생들의 모습. 이 학교는 현미 채식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한겨레신문기사)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의 주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채식 식단을 일주일에 하루라도 실천하도록 제안하는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벨기에 헨트시를 비롯하여 독일 브레멘, 브라질의 상파울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피츠버그, 마이애미에서는 시정부차원에서 주1회 채식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 교육부와 암스테르담 시정부측은 주최 행사 식단의 기본메뉴를 채식으로 한다고 결정내린 바 있다. 이제는 식물성 식품이 가득한 메뉴들 중 몇 개의 메뉴가 육식으로 정해지는 메뉴판으로 바뀌고 있다. 채식이 '뉴 노멀(New Normal)'이 되고 있는 것이다.

포르투갈은 지난 2017년 3월 공공기관에서 공급되는 식사에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제정되었다.

### 3. 정책의 제안

- ① 초, 중, 고등학교에 '채식 선택권' 보장 및 '주1회 채식 급식'의 도입, 시행
- ② 교육청과 관련기관, 산하기관 등에 '채식선택권' 보장 및 '주1회 채식 급식' 도입, 시행

③ 과도한 육류의 폐해를 알리고, 건강한 채식 위주 식사를 위한 교육자료의 도입 및 활용.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채식 영양학 교실' 운영 등

#### ■ 참고: 국내 채식 급식 사례들

- 전남 광주시 97% 241개 초, 중, 고등학교 주1회 채식급식 실시중
- 전북교육청 88개 학교에서 주1회 채식급식 실시중
- 삼육계열 학교(삼육초, 중, 고교)의 채식 급식 실시중
- 경북 안동 평산고등학교의 채식급식 실시중
- 대안학교(무주 푸른꿈고등학교, 금산 간디학교 등)의 채식급식 실시중
- 서울대학교 채식뷔페식당 2군데 운영중
- 동국대학교 채식뷔페 식당 운영중
- 세종대학교 학생식당 4군데서 주1회 채식급식 실시중
- 서울시, 주1회 채식의 날' 300여 곳으로 확대, 매주 '채식의 날' 운영
- 함안교육청, 대구교육청, 부산 식생활교육네트워크에서 주1회 채식급식 계획
- 제주도 친환경 채식급식 계획
- 강원병무청, SK건설, 안양시청, 마산시청, 창원시청, 울산시청, 인천연수구청 등 구내식당에서 주1회 채식급식 시행 중

#### ■ 참고: '주1회 채식급식' 관련 언론보도 기사내용

- '채식교육현장'에 시·도 교육감 후보들 대부분 긍정 검토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582>
- "먹는 일도 교육이다" 프랑스 '채식 급식' 의무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47&aid=002245910>
- 서울 학교급식에 '채식선택권' 도입..."초중고 점차 확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4362552>
- 고교생 현미·채식 103일...학력·건강 '쑥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8&aid=000258824>
- "현미채식 실험 두달, 아이들이 변했어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199316>
- 먹을수록 살찌는 학교급식, 주 1회라도 채식급식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2415972>

-美뉴욕 공립교, 월요일 급식엔 ‘고기’ 빼다  
<http://www.realfoods.co.kr/view.php?ud=20190314000651>

-이탈리아 기후교육 의무화..채식급식도 확산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228671/N>

-“학교 급식 고기류 치우쳐…매주 한 번이라도 채식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2178>

-美대학 62% '비건'식단 제공...대학생 인기메뉴로 급부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8&aid=0003756829>

-서울시 매주 ‘채식의 날’ 운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150634>

-“전북교육청 '채식의 날' 운영 만족도 높아”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218>

-"대구 대원고 ‘현미채식 급식’ 효과 톡톡"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2&aid=0002552792>

-채식급식, 학생 학부모 교직원 만족도 높아  
<http://www.anews.com/detail.php?number=523701&thread=09r02>

- 직장, 학교도 채식급식 바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093502>

-"현미채식 실험 두달, 아이들이 변했어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8&aid=0000199316>

-“오늘은 채식하는 날” 학교 급식 새바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02126409>

-“일주일에 한번정도 유기농 채식 좋잖아요?”  
[http://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8&code\\_M=2&mode=view&uid=419882](http://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8&code_M=2&mode=view&uid=419882)

-서울시 ‘주1회 채식의 날’ 2999곳으로 확대, 매주 ‘채식의 날’ 발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2155491>

-"육식문화 안 바꾸면 2050년엔 지구 황폐화..대만, 전국 학교의 30%가 주 1회 채식 동참"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2917>

-매주 하루는 고기 입에도 안 대는 도시...벨기에 헨트시, 매주 1회 ‘채식의 날’로 지킨다  
[http://china.joins.com/portal/article.do?method=print&total\\_id=3605790](http://china.joins.com/portal/article.do?method=print&total_id=3605790)

\*\*\*\*\***(아래는 MBC 다큐프로그램 '두뇌음식 프로젝트' 中 )**\*\*\*\*\*  
 (MBC 다큐프로그램 '두뇌음식 프로젝트' 中 54일간 현미채식 급식을 한 대구 서구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결같이 "살이 빠졌다" "아토피가 호전되었다" "피부가 좋아졌  
 다" "변비가 사라졌다" 등의 효과를 경험함)



- 답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